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경험 및 인식 조사*

김정자**

<차 례>

- I. 머리말
- II. 조사 목적과 방법
- III. 조사 결과
- IV. 맺음말

I. 머리말

학생에게 쓰기 지도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잘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교사는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수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글을 쓰는데 필요한 기능과 전략을 지도하고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자료를 제공하며, 적절한 때에 학생이 쓰기 과정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쓴 글을 읽으면서 글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평가를 해야 한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학생의 작문 태도와 미래의 쓰기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8-332-B00395))을 받아 수행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교사는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때에 따라 편집자, 독자, 경험 많은 선배나 코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머(Hamer, 2004)는 교사들이 학생의 글에 피드백을 줄 때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교사는 시험을 보고 학생들의 수행 결과인 시험지를 채점하는 검사자의 역할을 한다. 이와 극단에 있는 것은 학생의 글에 공감하고 흥미를 보이는 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사이다. 이 양 극단 사이의 역할로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돕는 보조자, 학생이 정보와 안내를 필요로 할 때 이용 가능한 자원, 학생이 글을 선택하고 재배열하는 것을 돕는 편집자, 학생의 글이 얼마나 잘 구성되었는지 말해주는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다른 역할보다는 검사자나 평가자로서 교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교사들이 학생의 글을 읽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과 흥미를 보이기보다는 글쓰기 여부를 검사하거나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여 글을 채점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 왔음을 의미한다.

교사가 학생의 글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다고 해도 그 내용에 따라 학생은 여전히 교사를 검사자나 평가자로만 여길 수 있다. 글에 빨간 펜으로 잔뜩 오류를 지적하거나 교정하고 수정 사항을 지시하는 등의 반응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레이브와 카플란(Grave & Kaplan, 1996)에 의하면 교사의 부적절하고 비판적인 반응에 의해 학생들은 부정적인 쓰기 태도를 형성하거나 쓰기 수행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한다. 반대로 교사의 지지적이며 정확하고 적절한 반응을 통해 학생들은 쓰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글을 쓰도록 동기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쓰기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쓰기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꽤 이루어졌지만 학생들이 초고를 작성하고 난 이후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수진(2007)의 지적대로 쓰기 교수·학습의 초기에 설명, 시범, 안내자로서의 교사 역할은 선명한 반면에, 본격적으로 글쓰기가 시작된 이후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고, 따라서 쓰기 교수·학습의 발전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서 학습자를 독립적

필자로 인정해 주고 조언해 주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쓰기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설명과 시범은 교수의 용이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만,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필자로서 학생을 성장시키는 면에서는 그다지 높이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II. 조사 목적과 방법

1. 조사 목적

교사는 글쓰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학생의 글쓰기 과정에 개입해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과정 중에 학생에게 조언이나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인 글을 읽고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다. 학생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또는 자신의 글에 대해 교사의 피드백을 기대한다. 특히 학생은 자신의 글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자신의 글의 강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학생의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의 글을 읽고 반응하는 것(responding)은 평가하는 것(evaluating)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사가 학생의 글에 반응을 해 주는 것은 그 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나 평가는 특정 텍스트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평가는 학습자의 쓰기 수행의 성취나 진보를 판단하거나 학습자가 작성한 글에 대해 질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학습자의 전체적인 글쓰기 수행과 앞으로의 글쓰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글에 대한 평가는 학생의 글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박혜숙, 2006). 반면에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은 완성고보다 초고가 효과적인데, 그것은 교사의

반응을 참고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은 학생의 글을 교정하는 것(correcting)과도 다르다. 교정은 학생의 글에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때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이다. 즉 학생의 글에서 내용의 오류, 문장 구조, 호응, 단어 선택 등의 문법상의 오류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고쳐주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학생의 글을 읽고 반응을 해 줄 때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지적해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응에서 부수적인 것이며 반응의 핵심은 교사가 학생에게 글을 수정할 수 있는 조언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반면에 오류를 교정해 주는 것은 학생 스스로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학생의 글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구어적 반응과 문어적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반응은 글쓰기 과정에서 초고의 수정을 위해 교사와 학생의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구두의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고, 교사가 학생의 글에 문자로 자신의 반응을 써 주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실의 환경과 학생 구성원, 실천 가능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효율적인 방식은 문어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구두 반응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서 효과가 있지만, 다인수 학급이라는 수업 현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에 비해 문어적 반응은 다인수 학급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고 구어적 반응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교사가 학생의 글에 반응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반응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글을 쓰고 사고하는 것을 돕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글을 쓰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쓰기 경험을 주기 위해 교사가 학생의 글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사들이 학생의 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부로서 본고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했다.

2. 조사 방법

이 연구는 학생의 글에 대한 교사의 반응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 도구는 실제 초등학생이 쓴 글을 수집하여 작성했다. 상, 중, 하 세 등급을 대표할 수 있는 글을 뽑았는데, 이 때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과 독후감상문이라는 두 유형의 글을 쓰게 했다. 따라서 교사에게 장르와 글의 수준이 다른 총 6편의 학생 글이 제공되었고 학생의 원고 옆 공간에 반응을 쓰도록 했다. 이 조사와 함께 학생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교사가 어떤 경험과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본고에서는 이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전에 세 학교를 선정하여 30명의 교사에게 설문에 답을 하며 설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한 후 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설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학생의 일기에 반응을 써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답하지 않도록, 먼저 교사들에게 일기 쓰기 지도에 대해서 물었다. 본 조사의 내용은 일기 쓰기 지도가 아니며, 학생의 일기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것은 교사들에게 반응하기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다음 부분에서는 학생의 글에 반응한 경험을 조사했는데, 국어 시간에 하는 글쓰기 지도에서 학생의 글에 반응하고 있는지, 반응하기가 어려운지, 그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반응하는지, 반응을 써 줄 때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에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반응하기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했는데, 어떤 종류의 글에 반응을 해 주어야 하는지, 오류는 어떻게 지적해야 하는지, 반응의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어떤 반응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반응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글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반응

을 달리 해야 하는지, 반응하기가 글쓰기 지도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본 조사는 경기도내 초등학교 15개교의 교사 151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9일에서 6월 19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실제 교사들이 학생의 글에 반응을 써 준 자료도 함께 수집했는데, 설문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교사가 학생의 글에 반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¹⁾ 6학년 학생이 쓴 글 6편을 읽고 반응을 하도록 연구를 설계했기 때문에 현재 5~6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의 글을 읽도록 했으며, 설문 조사의 대상도 동일 교사들로 삼았다. 학교의 규모가 작아 현재 5학년과 6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수가 적은 경우는 직전 해에 5학년이나 6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 교사의 72%가 교육경력 10년 이하였으며 74%가 여교사였다.²⁾

조사 대상의 전체 수는 151명이나 담당학년에서 5명이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결측’이라고 표기하였다. 이외에도 응답자에 따라 문항 별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담당학년, 교육경력, 성별 분포

담당학년	1	2	3	4	5	6	무응답	합계
	2	3	6	3	55	77	5	151
경 력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10년 이상 15년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	합계		
	54	55	23	5	14	151		
성 별	남			여			합계	
	39			112			151	

1) 교사가 학생의 글에 실제로 쓴 반응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2) 교육경력 및 성별 분포가 고르지 않아 교육경력 및 성별 특성에 따른 결과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다.

Ⅲ. 조사 결과

1. 학생의 글에 반응을 한 교사의 경험

1) 반응하기의 실시 경험과 그 어려움에 대한 인식

교사들이 글쓰기 지도 시 학생의 글에 대해 조언이나 피드백, 감상 등의 반응을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 보았다. 조사 대상 교사의 67.5%가 학생의 글에 반응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9.3%의 교사는 학생의 글에 거의 반응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답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의 글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반응하기 실시 경험

반응하기 실시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학생들이 글을 쓸 때마다 매번 한다	17	11.3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102	67.5
보통이다	18	11.9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14	9.3
전혀 하지 않는다	0	0
합계	151	100.0

학생들이 쓴 글을 읽고 그 글에 반응을 해 주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교사들에게 물어 보았다. 25.9%의 교사가 학생들의 글에 반응을 해 주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글에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 쉽다고 여기는 교사는 37.7%였다.

〈표 3〉 반응하기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반응하기의 어려움 정도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학생들의 글에 반응을 해 주는 것은 매우 쉽다	7	4.6
학생들의 글에 반응을 해 주는 것은 쉬운 편이다	50	33.1
보통이다	55	36.4
학생들의 글에 반응을 해 주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38	25.2
학생들의 글에 반응을 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1	0.7
합계	151	100.0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교사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유를 물었다. 39명의 교사 중 22명의 교사(56%)가 어려움의 이유로 학생들의 글을 읽고 반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³⁾ 교사가 학생의 글을 읽고 반응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적절한 학생 규모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반응의 방법과 형식

학생의 글에 교사가 반응을 할 때는 학생과 대면 상황에서 말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학생의 글에 짧은 글로 조언을 써 줄 수도 있다.⁴⁾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54.3%의 교사들이 구두 반응과 문자 반응을 다 사용했다.

기타의 대답을 한 교사들은 3명인데, 한 교사는 구두 반응과 문자 반응을 비슷한 비율로 한다고 답했으며, 한 교사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달리 반응한다고 했으며, 나머지 한 교사는 직접 그 학생이 쓴 글을 보면서 구두 및 문자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 준다고 답했다.

3) 7명은 쓰기 교과서의 내용을 지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답했으며 5명은 학생의 글에 어떻게 반응해 주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교사는 중복답(3명), 기타(2명)의 응답을 했다.

4)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교사가 자신의 반응을 녹음하여 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

〈표 4〉 반응의 방법

반응의 방법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구두로 반응한다	21	13.9
학생이 글을 쓴 종이에 문자로 써 준다	45	29.8
대부분 구두로 반응하고 때때로 학생의 글에 문자로 써 준다	53	35.1
대부분 학생의 글에 문자로 써 주고 때때로 구두로 반응한다.	29	19.2
기타	3	2.0
합계	151	100.0

구두로 반응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제외하고 학생의 글에 문자로 반응을 써 줄 때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물어 보았다. 조사 대상 교사의 약 절반 이상의 교사가 간단한 한 두 문장으로 학생의 글에 반응을 해 준다고 답했다. 이것은 교사들이 반응하기의 어려움을 든 이유로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고 답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간단한 한 두 문장으로 반응을 써 주는 경우에 그 글 자체의 내용과 형식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반응은 학생의 글을 향상시키거나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썼다, 재미있다” 등의 짧고 일반적인 칭찬과 감상에 그친 교사의 반응이나 한 두 문장으로 압축된 교사의 반응은 학생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5〉 반응의 형식

반응의 형식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짧은 글로	41	31.5
간단한 한 두 문장으로	73	56.2
교정 부호 같은 각종 약호를 사용하여	7	5.4
기타	6	4.6
결측 ⁵⁾	3	2.3
합계	130	100

5) 이 질문에 답한 교사는 128명이며 2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응답한 교사 중 1명은 중

학생의 글에 반응을 써 줄 때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의 색깔은 빨간 색이었다. 관습적으로 교사들은 빨간 펜을 사용하여 학생의 글에서 오류를 지적하거나 학생의 글을 교정하곤 했다. 빨간 색 펜으로 나타낸 교사의 반응은 연필이나 검은 색 펜으로 쓴 학생의 글과 대비되고 눈에 잘 띄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빨간 펜으로 나타낸 교사의 반응이 주로 오류의 지적이나 교정, 수정 사항의 지시, 부정적인 평가일 경우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가 크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를 자신의 글을 읽어 주는 독자가 아니라 평가자나 검사자 역할로 인식할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 반응 시 사용하는 펜의 색깔

사용하는 펜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빨간색 펜	63	48.5
파란색 펜	33	25.4
기타	29	22.3
결측(중복 답)	5	3.8
합계	130	100

두 교사의 응답을 주목할 만한데, 한 교사는 자신의 반응의 내용에 따라 펜 사용을 달리 한다고 했다. 수정 사항은 빨간 펜, 참고할 내용은 파랑 펜, 칭찬을 할 경우는 형광펜을 사용한다고 했다. 다른 한 교사는 글의 종류에 따라 달리 펜을 사용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일기는 파란색 펜을, 일기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글은 빨간 펜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글에 문자로 반응을 써 준다고 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런데 교사 양성 과정이나 각종 연수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이는 교사 양성 과정이나 각종 연수에서 학생의 글을 읽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을 하는 방법이나 지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 답을 하여 3명을 결측값으로 처리했다. 이후 질문에서 중복 답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중복 답을 한 경우와 무응답은 자료 처리의 편의를 위해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학창 시절에 지도받았던 경험을 되살리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의 문제점은 교사의 반응 방식에 일관성이 없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 경험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 경험	응답자 수 (단위: 명)	비율 (단위: %)
과거 학창 시절 내가 지도받았던 방식으로 한다	24	18.5
교사 양성 과정이나 각종 연수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한다	13	10
나만의 원칙과 방식을 고안하여 한다	45	34.6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대로 한다	42	32.3
기타	4	3.1
결측(무응답)	2	1.5
합계	130	100

3) 반응의 내용

학생들의 글에 대한 반응으로 글에 주로 쓰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⁶⁾ 교사들이 반응에 쓰는 내용으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글에 대한 칭찬이며 그 다음이 수정해야 할 내용 지적이었다.

〈표 8〉 반응의 내용

반응의 내용	응답 수 (단위: 회)	비율 (단위: %)
글에 대한 칭찬	87	36.6
맞춤법 및 띄어쓰기 지적	29	12.2
문법에 어긋난 표현 지적	17	7.1
수정해야 할 내용 지적	61	25.6
등급 표시(또는 점수 표시)	11	4.6
글에 대한 전체적인 평	33	13.9
합계	238	100

6)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조사 대상이 130명이므로 모두 260개의 답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자료 처리의 편의를 위해 세 가지 이상의 답을 한 경우, 무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238개의 답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맞춤법 및 띄어쓰기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문법에 어긋난 표현을 지적하고 수정해야 할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모두 수정 사항의 지적과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실제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글에 주로 반응하는 내용은 글에서 수정 사항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최규수(2009)는 오류 중심의 첨삭지도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글쓰기 지식의 측면에서 세부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조될수록 학생들에게서 소극적이면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쉬웠다는 것이다.

2.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생의 글을 읽고 반응을 써 주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 보았다. 현재 학생의 글을 읽고 그에 대한 반응을 써 주지 않고 있더라도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모두 답을 하도록 요구했다.

1) 교사 반응의 대상이 되는 글의 유형에 대한 의견

학생의 글에 반응을 해 준다면 주로 어떤 종류의 글에 해야 되는지 물어 보았다.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를 매기라고 요구했는데, 1순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논설문, 의견서 등의 설득적인 글(57.6%)이며, 그 다음으로 편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13.9%)과 설명문, 보고서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12.6%)이 순이었다. 2순위에서는 감상문 같은 정서 표현의 글(31.1%), 설명문, 보고서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28.1%)의 순이었다. 설득적인 글이나 정보 전달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를 조사하며 자신의 생각을 재조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생은 이러한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교사들도 주로 이러한 유형의 글에 대해 반응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오류 지적에 대한 의견

학생의 글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어법 면에서 실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의견을 물어 보았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지도한다고 답한 교사는 18명(11.9%), 치명적인 실수 두세 가지 정도만 지적한다고 답한 교사는 55명(36.4%),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 두세 가지 정도만 지적한다고 답한 교사는 48명(31.8%),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학생들이 수정할 수 있는 것만 지적한다고 답한 교사는 25명(16.6%)이었다. 그 의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오류에 대해 최소한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답한 것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답한 교사는 3명(2.0%)뿐이었다.

그런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오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실제 교사들이 학생의 글에서 반응한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의 글에 반응한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교사들이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의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거나 그것을 교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글의 수준이 하인 학생의 글에서는 글의 내용이나 조직에 대한 조언보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오류에 대한 지적과 교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수정의 능력이 부족하고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에게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 교사의 반응이 오히려 쓰기 지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의 실수나 오류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인 교사의 반응은 학생들에게 독자, 글의 목적, 내용보다 형식의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의 오류를 교사가 모두 교정해 주는 것은 학생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3) 반응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의견

학생의 글에 반응을 해 줄 때 언제가 적절한지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이 초고를 쓴 뒤에 반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일부 교사가 글을 쓰는 과정 중이 적절한 반응의 시기라고 답했다.

〈표 9〉 반응의 적절한 시기

적절한 시기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글을 쓰는 과정 중에	10	6.6
학생이 초고를 쓴 뒤에	92	60.9
학생이 완성된 글(마지막 원고)을 쓴 뒤에	44	29.1
기타	1	.7
결측(중복 답)	4	2.6
합계	151	100.0

초고가 아니라 완성된 글(마지막 원고)을 쓴 뒤에 반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대답을 한 교사도 44명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이미 글을 완성했기 때문에 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어 자신의 글을 수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독자로서 학생의 글을 읽고 칭찬이나 격려, 감상 등을 제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미 글을 완성한 뒤에 글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언을 한다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윌리엄즈(Williams, 1998)는 반응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글이 이미 완성되고 난 후 총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은 학생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초고를 쓰고 난 후 수정 과정 중에 반응을 해야만, 학생들이 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어 자신의 글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4) 반응의 내용에 대한 의견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생의 글에 주로 어떤 내용을 써 주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다.⁷⁾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글에 대한 칭찬과 글에 대한 전체적인 평이었다.

〈표 10〉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의 반응

반응의 내용	응답 수 (단위 : 회)	비율 (단위 : %)
글에 대한 칭찬	87	29.6
잘못된 맞춤법 및 띄어쓰기 지적	17	5.8
문법에 어긋난 문장 지적	5	1.7
글의 조직에 대한 언급	46	15.6
글의 내용에 대한 언급	54	18.4
등급 표시(또는 점수 표시)	4	1.4
글에 대한 전체적인 평	78	26.5
기타	3	1.0
합계	294	

잘못된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법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응답의 수가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하거나 글의 조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을 써 주려면 교사는 학생의 글을 자세히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쓰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만 한다. 글에 대한 칭찬이나 전체적인 평을 써 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법을 지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반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의 의견과 교사의 실제 반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 151명의 교사가 응답을 두 개 선택하면 응답 수가 302개 나와야 하는데, 1명의 교사가 4개의 답을 선택하여 이를 제외시켰고 6명의 교사가 1가지 답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총 응답 수가 294개가 나왔다.

5) 반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반응을 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 해야 되는 것을 물어 보았다. 조언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칭찬과 격려를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표 11〉 반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반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조언의 내용	50	33.1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의 사용	34	22.5
학생들의 수정 능력 고려	19	12.6
칭찬과 격려를 꼭 함	44	29.1
결측(중복 답)	4	2.6
합계	151	100.0

조언의 내용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조언의 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언을 할 때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교사도 조언의 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교사의 조언이 학생의 글쓰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한 조언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과 직접 대면하여 구두로 반응을 할 때 교사는 학생의 이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 또한 교사에게 다시 물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자로 반응을 할 때는 교사가 학생의 이해 정도를 알 수 없다. 또 교사들이 사용하는 기호라든지 간략한 메모 형식, 압축적인 내용은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문자로 반응을 할 때 교사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교사는 또한 학생의 수정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학생이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그런데 교사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6) 글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의견

글의 수준과 글의 유형에 따라 달리 반응을 해야 하는지 물어 보았다. 응답 교사(150명)의 96%(매우 그렇다 38.7%, 어느 정도 그렇다 57.3%)가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교사가 달리 반응해야 된다고 답했다. 응답 교사(149명)의 91.3%(매우 그렇다 30.2%, 어느 정도 그렇다 61.1%)가 학생이 쓴 글의 유형에 따라 교사는 달리 반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⁸⁾

실제로 이 교사들이 학생의 글에 쓴 반응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글의 장르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주장하는 글에서는 교사의 반응 중 주장과 근거, 글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독서감상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생활 태도에 대한 의견이나 격려, 칭찬, 내용에 대한 공감에 많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장르적 특성을 언급하고 그에 따라 학생의 글에 조언이나 피드백을 준 경우는 많지 않았다.⁹⁾

7) 반응하기의 효과에 대한 인식

작문 지도 방법으로서 반응하기의 효과에 대한 의견, 즉 학생의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에 대해 교사 반응을 써 주는 것이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보았다. 78.1%의 교사가 학생의 글에 교사가 반응을 해 주는 것이 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

8) 학생의 글에 반응할 때 현실적인 문제인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된 것이기는 하지만, 네먼(Neman, 1995)도 학생이 작성한 글의 장르에 따라 달리 반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적, 표현적 쓰기(personal, expressive writing)에는 교사가 반응하는데 주위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수정을 요구하는 조언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공감적 독자로써 교사의 반응을 쓰는 것이 좋으며, 내용에 대해 자세한 수정을 요구하는 조언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른 논의에서 다룰 것이다.

〈표 12〉 반응하기의 효과

반응하기의 효과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효과가 매우 크다	22	14.6
효과가 크다	96	63.6
보통이다	32	21.2
효과가 거의 없다	1	0.7
효과가 전혀 없다	0	0
합계	151	100.0

주목해야 할 점은 21.2%의 교사가 보통이라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효과에 대해 유보적인 교사들이 제시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데, 많은 교사들이 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학생의 수준과 태도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학생의 수준을 도움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보는 의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은 학생의 수준이 교사의 조언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해 글을 수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 어느 정도 (글쓰기 능력이 좋은 아동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반응하기가 간단하므로 글쓰기 능력이 낮은 아동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 글쓰기가 교사의 지도로 크게 향상된다는 점에 다소 회의적이므로, 학생의 경험(독서, 직접경험) 사고 수준 등이 상당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 학생의 수준에 따라 격려가 될 수 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 학년, 개인차에 의해 차이가 심하다.
- 다시 읽고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수준이 되어 첨삭을 반영할 수 있는 아동에는 도움이 되나 그냥 첨삭을 읽고 덮어버리는 아동의 경우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학생의 태도를 그 원인으로 보는 의견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들은 학생들이 글쓰기에 흥미가 없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글쓰기를 교사의 반응에 따라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코멘트를 해주고 그 다음 글쓰기를 할 때 수정해서 반응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
- 교사의 반응 멘트를 재미로 읽고 넘기는 것처럼 보여서
-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 사람(학생)에 따라서 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반적 인지는 모르겠다.

반면에 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교사들의 이유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교사의 반응이 학생에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며, 학생에게 자신의 글에 독자가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칭찬이나 격려하는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의 반응이 학생들의 쓰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 선생님의 반응을 아이들이 관심으로 받아들여 글쓰기에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음
-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선생님이 어떠한 반응을 해 준다는 것 자체에 아이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쓰기 능력의 긍정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 학생은 교사의 피드백에 큰 자극과 의욕을 갖게 된다.
- 자신이 쓴 글에 교사가 반응을 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동은 교사와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글을 칭찬해 주면 학생들의 의욕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교사의 격려와 칭찬이 때로는 큰 동기가 되기 때문에
- 교사의 조언이나 칭찬 격려가 학생들의 글쓰기에 흥미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음
- 교사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 아동은 글쓰기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점차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하게 되므로

또 다른 의견은 교사의 반응이 학생에게 자신의 글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글에 써 준 교사의 반응을 읽고 나서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되돌아보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파악하고, 글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도움이 되는 이유로 보았다.

- 다음에 다시 고쳐쓰고 잘못된 부분을 곧바로 수정함. 자신의 글을 다시 한 번 보게 됨
-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 교사의 반응으로 학생이 자신이 쓴 글에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신이 부족한 점과 잘하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므로
- 교사의 글에 대한 반응을 통해 아동은 글의 중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다 정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보다 자신의 실수를 바로 알고 수정하기 쉽기 때문에
- 내가 쓴 글의 문제점이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면 글쓰기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에 따른 반응하기의 효과에 대해 물어 보았다. 교사가 학생의 글을 읽고 조언을 써 주었을 때 어떤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물어 보았다. 72.8%의 교사가 글을 어느 정도 쓰는 학생 즉 글의 수준이 중인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글의 잘 못 쓰는 학생 즉 글의 수준이 하인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본 교사는 전체 교사의 5.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하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조언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3〉 학생의 수준에 따른 반응하기의 효과

학생의 수준에 따른 반응하기의 효과	응답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글을 잘 쓰는 학생, 글의 수준이 상인 학생	32	21.2
글을 어느 정도 쓰는 학생, 글의 수준이 중인 학생	110	72.8
글을 잘 못 쓰는 학생, 글의 수준이 하인 학생	8	5.3
결측	1	0.7
합계	150	100.0

상 수준의 학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한 교사들이 제시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크게 학생의 수정 능력과 이해 능력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 수준인 학생들이 교사의 반응에 따라 글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다른 한 부류는 교사의 문자 반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글쓰기에 대한 기본이 있어서 조금만 수정(반응해)주어도 내용을 매끄럽게 수정한다. 글을 잘 못 쓰는 학생은 수정해주는 것 자체를 그리고 수정하라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한다.
- 글의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고가 체계적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다.
-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은 조금만 지적을 해 주거나 반응을 해 주어도 쉽게 이해하고 고쳐씁니다.
- 적극적으로 반응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수정 능력을 갖고 있으니가
- 자신의 부족한 부분 혹은 잘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함
- 학생이 교사의 문자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 문자 반응은 글쓰기가 잘 이뤄지는 학생만이 제대로 읽는다. 나머지 학생들을 글로 지적하면 이해를 못함
- 어느 정도 글 쓰는 수준이 갖춰진 학생일수록 교사의 문자 반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글 쓰는 수준이 낮은 학생은 잘 하는 학생에 비해 교사의 반응을 받아들이

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

- 글 수준이 중하인 학생들은 문자 반응만으로 선생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 문자만으로도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하’인 아이들은 수정할 사항이 많아서 문자로 모두 하기 힘들다.
- 직접 대면하여 구두로 하지 않을 경우 글을 잘 쓰는 아동이 문자로 반응해 주는 교사의 활동에 대해 이해 폭이 높다.

글쓰기 수준이 중인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한 교사들은 중인 학생들이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다. 즉 중 수준인 학생들은 적절한 반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인 학생들은 글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없으며 하 수준의 학생은 수정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으며 또한 수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교사의 답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글의 수준이 중인 학생의 글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그것을 더 잘 파악하여 금방 수정을 잘 하고, 칭찬과 격려도 함께 해주면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같다. 글의 수준이 하인 학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글을 고쳐쓰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학생 수준에 맞는 것만 지적해 줘도 잘 수정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칭찬과 격려보다 지적이 많아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도 힘든 것 같았다. 글의 수준이 상인 학생은 글쓰기도 잘 하고 글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반응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 글의 수준이 중인 학생의 경우 문자로 반응해 주었을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줄 수 있으므로, 글의 수준이 하인 학생의 경우 문자로만 반응해 주었을 때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응하기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결국 종합하면 학생

들의 수준과 능력, 태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의 수준이나 태도에 따라 말할 내용과 반응을 전달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의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에 따라 글을 수정하지 않으면, 교사의 반응은 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후 교사가 제시한 조언이나 피드백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글의 수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IV. 맺음말

교사가 학생의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 반응을 해 주는 것은 쓰기 지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 교사는 학생에게 글에서 잘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쓰고 있는 글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글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해 제안이나 충고를 할 수도 있다. 트웨이(Tway, 1980)는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가 학생의 글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복돋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학생에게 용기를 주고, 사고를 촉진할 질문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문장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아이디어의 핵심을 화장하도록 돕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의 글쓰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대로라면 또는 이상적인 상태라면 학생들은 교사의 반응을 통하여 배우며 이러한 배움을 다음 글쓰기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의 원인을 우선 교사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글에 어떠한 방식으로 조언을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사 양성 과정이나 연수에서 배운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학생들의 글에 반응을 써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물어 교

사의 반응 양상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했다. 이는 학생의 글에 교사들이 적절한 반응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설문에 대한 응답만으로 교사들의 반응 양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의 글에 어떻게 반응을 써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즉 교사들이 학생의 글에 써 준 반응을 분석하고 이 자료와 설문 결과를 비교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0. 6. 30. 투고되었으며, 2010. 7. 15. 심사가 시작되어 2010.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구자황(2008), “수정과 피드백이 글쓰기에서 동인(動因)이 되는 방식을 위한 탐구”, 『어문연구』 56.
- 김경화(2009), “고등학생의 경험한 일 쓰기에 대한 국어 교사의 논평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숙(2009), “첨삭지도라는 공통감각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개선방향”, 『반교어문연구』 26집.
- 박혜숙(2006), 『영어 쓰기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수진(2007), “쓰기-교수 학습에서 조언자로서의 교사의 의미 탐색”, 『청람어문교육』 3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최규수(2009), “첨삭지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 양상과 교육적 효과의 문제-명지대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6집.
- Carol, T. & Katznelson, H(1996), Ideology and purpose in tacher's written responses to students writing, In G. Rijlaarsdam, H. van den Bergh & M. Couzijn(eds.),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of Writing*, Amsterdam University Press.
- Grabe, W. & R. Kaplan(1996), *Theory & Practice of Writing*, Longman.
- Hamer, J.(2004), *how to teach writing*, Longman.
- Neman, B. S.(1995), *Teaching Students to Writing*(2nd),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S. & Kennedy, K(2006), Sixth-grade Teachers' Written Comments on student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Vol.23. No.1.
- Smith, S.(1997), The Genre of the End Comment : Conventions in Teacher Responses to student Writing, Vol.48, No.2.
- Sommers, N.(1982),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33, No.2.
- Straub, R.(1999), *A Sourcebook for Responding to Stident Writing*, Hampton Press.
- Straub, R.(2006), *Key Works om Teacher Response*, Boynton/Cook Heinemann.
- Tway, E.(1980), How to find and Encourage the Nuggets in Children's Writing, *Language Arts*, Vol. 57, No. 3.
- Williams, J. D.(1998), *Preparing to Teaching Writing*(2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hite, E. M.(2007), *Assigning, Responding, Evaluating*(4th), Bedford/St.Martin's.

<초록>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경험 및 인식 조사

김정자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학생의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글을 읽고 평가하는 것(evaluating)이나 학생의 글을 교정하는 것(correcting)과 다르다. 교사의 반응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우리 교실의 환경과 학생 구성원, 실천 가능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효율적인 방식은 문자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반응을 통해 학생에게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쓰기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글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의 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학생의 글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내 초등학교 15개교의 교사 151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9일에서 6월 19일 사이에 설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반응 실시 정도, 반응의 어려움, 어려움의 원인, 반응의 형식과 방법, 반응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학생의 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 반응을 해야 하는 글의 유형, 오류 지적의 문제, 적절한 반응의 시기,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의 반응, 반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글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 반응하기의 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결과는 학생의 글에 교사들이 적절한 반응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반응의 양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생의 글에 써 준 반응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을 설문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핵심어】 쓰기 지도, 교사 반응, 반응하기

<Abstract>

A Survey of Teachers' Experience and Perception on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Kim, Jeong-ja

This study is to survey teachers' experience and perception on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Responding differ from evaluating and correcting.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means that the teacher says something on what students have done. Our writing classroom,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class, and workableness considered, written comments are more efficient. Teachers' appropriate response can provide positive writing experience to students. Thus this survey asks teachers how they respond to student writing and how they think and perceive about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This study surveyed 151 teachers on 15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do from June 9 through June 19, 2009. This survey asked about experience of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degree and difficulty of responding, cause of difficulty, form and way of responding, contents of comments. And This survey asked about perception of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type of writing that need, contents of helpful response, responding, the matters of correcting student's mistake, appropriate moment of responding, caution of responding, way of responding according to genre and level of student writing, and effectiveness of responding. The results of survey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a theory on how teachers respond to student writing appropriately.

【Key words】 teaching writing, teacher's response,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